



發行人 李正浩 正浩發行
編輯 林英寬 林英寬編輯
印刷 李正浩 正浩印刷
主編 林英寬 林英寬主編
副主編 李正浩 李正浩副主編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길26
우편번호 100-715
전화번호 88131~9
本社直通 8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번지
전화번호 2-0131~6
毎週 火曜日發行

결정코 있다고 하면 상견(常)에 집착함이고, 결정코 없다고 하면 단견(斷)에 집착함이다. 그런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있고 없음(有無)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法句經>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 오는 31일 열려

연석회의 대표선임 학생대표 5일째 단식농성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慶州 학생회의원 총면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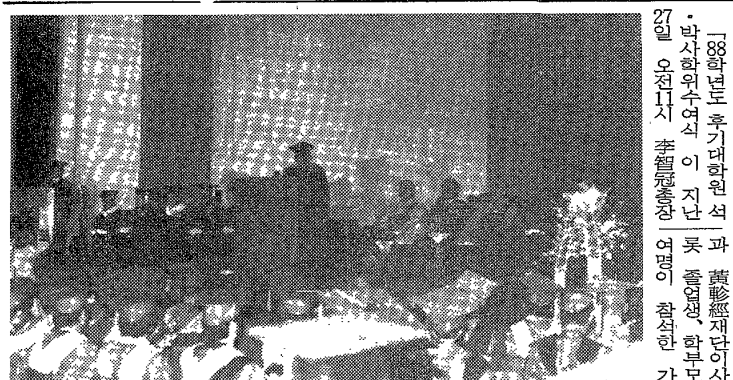
31일 초청강연·대동예술단 공연 열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

박사 21·석사 1백 46명 배출



△88학년도 후기대학원 석·박사학위 수여식이 지난 27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東大新聞 1천호 기념사업

- 동대신문 속쇄판 제1권 제작
- 컬럼선집 「달하나 千江에」 발간
- 제3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전국 고교 신문·교지 경연대회
- 각종 전시회 개최

東大新聞社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1988년 10월 31일 학자투 완수·휴교령 저지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00평매장

을지서적

“지성과 젊음이 만나는 대형문화공간”

- 외국서적
- 대학교재 완비
- 각종 문화행사 예매
- 컴퓨터 코너(HW, S/W)
- 휴식공간이 마련된 만남의 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길26
전화: 757-8991~5

The Korea Herald

외국어강좌

○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 TOEFL
- 영어회화
- 한국어

757-0419/20

alliance française

프랑스어

A VOS MARQUES

MÉTHODES Adolescents - Adultes

9·10월 학기 개강: 88.9.5(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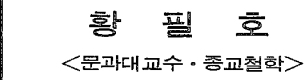
732-5346 735-3771

國是...反共인지 스포츠인지

[illegible][illegible]

올림픽과 휴교설

「3S」정책으로 국민의식 호도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2.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3.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4.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6.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7.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8.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9.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10.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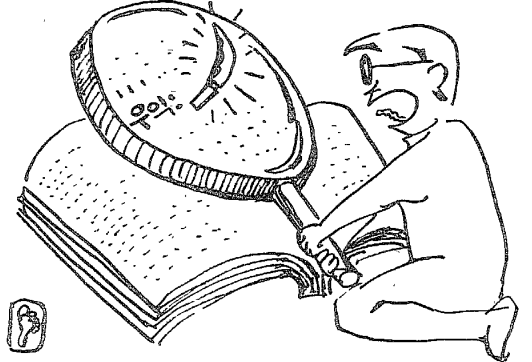
〈ਮੀਰਤੁਲਾ • ਮੀਰਤੁਲਾ〉



反민중적 독재올림픽 철저히 폭로해 내야

[illegible]

東國漫評



◇「右翼」 찾기。

남입금 수납연장 안내

1988학년도 제2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
금을 아래와 같이 연장 수납합니다.

아 래

1. **수납기간** : 1988년 8 월29일 ~ 9 월10일 (13일간)
2. **수납은행** : 조흥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3. **수납방법**
 - ① 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 ② 장학금 수혜자중 고지서에 납입금액이 전산으로 감액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감액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의 회수를 소지하고 별도로 지정된 수납장소에서 감액하여 납입하여야함.
- < **별도지정 수납장소** >
서울캠퍼스 : 조흥은행 종로지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경리과
4. **유의사항**
 - ① 전산처리된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납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30일

총 무 처 장

후생복지시설(식당)임대공고

학생·교수·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생복지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니 본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취지
가. 동국대학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소
의 이윤으로 최대의 봉사하는 후생복지시설
구현
나. 후생복지시설의 소비조합결성을 위한 파도기적
운영(임대기간 1년)
2. 임대시설
다함관 학생식당, 다함관 경양식식당, 혜화관휴게실
3. 임대기간
1988. 9 ~ 1989. 8. 31
4. 신청서류
가. 이력서 2부
나. 주민등록등본 2부
다. 자기소개서 2부
라. 운영계획서 1부
5. 접수마감
1988년 9월 4일 17:00
6. 접수처: 후생복지과(교수회관 3층)
7. 운영계획서 기재사항
가. 식당운영계획(원가분석, 메뉴별가격까지 자세히)
나. 운영원 서비스 계획
다. 졸업원채용: 보수, 처우·교육등에 관한사항
라. 소비조합결성을 위한 방안 및 운영계획
마. 사업계획
8. 임대조건
임대임자는 소비조합 결성을 위한 파도기적 운영
을 위해 소비조합건설준비위원회의 감독을 따라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988년 8월 30일

홍익대학교

모든 금융거래를
우체국 통장으로

- ## ◆온라인 전자종합통장
- ▶통장하나로 각종예금거래
 - ▶전국대상으로 온라인 즉시송금
 - ▶돈을 보낼때 하고싶은 말도 전달
 - ▶전기요금·전화요금 자동납부
 - ▶정기예금식 환대체예금
 - ▶최고의 수익성 : 91일 만기→년 11%
단기자금 증식에는 최고이율
 - ▶편미한 환금성 : 중도해약시 높은 이
자 지급
 - ▶안전한 저축수단 : 1만원이상 무제한
예치 가능
- 기타별 예치이율

(세액공제전 금액)		
예치기간	이율	지급이자(1000만원예치시)
7~15일까지	연5.5%	11,000~23,000
16~30일까지	연6.5%	28,000~53,000
31~60일까지	연7.5%	64,000~123,000
61~90일까지	연8.5%	142,000~210,000
91일	연11%	274,000

◇자유저축예금

- ※이용문의전화 : 273-1005, 273-6507

※이용문의전화 : 273-1005, 273-6507

동국대학교 우체국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
학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
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수 있도록 한상
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illegible]

영웅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
시면 군복무기간만을 거치기만을 예상할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일 납입하여야함
나다.

2.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시기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기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렵히고 따
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용자하여 드리
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

어떻게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본 감안 하서 연체금 정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민 은 행

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민족문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외국에서도 알맞는 어휘를 찾기가 힘들다.

[illegible]

통일과 조화의 「한」 사상이 민족정서로 표출돼

1. 1945년 12월 15일 2. 1946년 1월 15일 3. 1946년 2월 15일 4. 1946년 3월 15일 5. 1946년 4월 15일 6. 1946년 5월 15일 7. 1946년 6월 15일 8. 1946년 7월 15일 9. 1946년 8월 15일 10. 1946년 9월 15일 11. 1946년 10월 15일 12. 1946년 11월 15일 13. 1946년 12월 15일 14. 1947년 1월 15일 15. 1947년 2월 15일 16. 1947년 3월 15일 17. 1947년 4월 15일 18. 1947년 5월 15일 19. 1947년 6월 15일 20. 1947년 7월 15일 21. 1947년 8월 15일 22. 1947년 9월 15일 23. 1947년 10월 15일 24. 1947년 11월 15일 25. 1947년 12월 15일 26. 1948년 1월 15일 27. 1948년 2월 15일 28. 1948년 3월 15일 29. 1948년 4월 15일 30. 1948년 5월 15일 31. 1948년 6월 15일 32. 1948년 7월 15일 33. 1948년 8월 15일 34. 1948년 9월 15일 35. 1948년 10월 15일 36. 1948년 11월 15일 37. 1948년 12월 15일 38. 1949년 1월 15일 39. 1949년 2월 15일 40. 1949년 3월 15일 41. 1949년 4월 15일 42. 1949년 5월 15일 43. 1949년 6월 15일 44. 1949년 7월 15일 45. 1949년 8월 15일 46. 1949년 9월 15일 47. 1949년 10월 15일 48. 1949년 11월 15일 49. 1949년 12월 15일 50. 1950년 1월 15일 51. 1950년 2월 15일 52. 1950년 3월 15일 53. 1950년 4월 15일 54. 1950년 5월 15일 55. 1950년 6월 15일 56. 1950년 7월 15일 57. 1950년 8월 15일 58. 1950년 9월 15일 59. 1950년 10월 15일 60. 1950년 11월 15일 61. 1950년 12월 15일 62. 1951년 1월 15일 63. 1951년 2월 15일 64. 1951년 3월 15일 65. 1951년 4월 15일 66. 1951년 5월 15일 67. 1951년 6월 15일 68. 1951년 7월 15일 69. 1951년 8월 15일 70. 1951년 9월 15일 71. 1951년 10월 15일 72. 1951년 11월 15일 73. 1951년 12월 15일 74. 1952년 1월 15일 75. 1952년 2월 15일 76. 1952년 3월 15일 77. 1952년 4월 15일 78. 1952년 5월 15일 79. 1952년 6월 15일 80. 1952년 7월 15일 81. 1952년 8월 15일 82. 1952년 9월 15일 83. 1952년 10월 15일 84. 1952년 11월 15일 85. 1952년 12월 15일 86. 1953년 1월 15일 87. 1953년 2월 15일 88. 1953년 3월 15일 89. 1953년 4월 15일 90. 1953년 5월 15일 91. 1953년 6월 15일 92. 1953년 7월 15일 93. 1953년 8월 15일 94. 1953년 9월 15일 95. 1953년 10월 15일 96. 1953년 11월 15일 97. 1953년 12월 15일 98. 1954년 1월 15일 99. 1954년 2월 15일 100. 1954년 3월 15일 101. 1954년 4월 15일 102. 1954년 5월 15일 103. 1954년 6월 15일 104. 1954년 7월 15일 105. 1954년 8월 15일 106. 1954년 9월 15일 107. 1954년 10월 15일 108. 1954년 11월 15일 109. 1954년 12월 15일 110. 1955년 1월 15일 111. 1955년 2월 15일 112. 1955년 3월 15일 113. 1955년 4월 15일 114. 1955년 5월 15일 115. 1955년 6월 15일 116. 1955년 7월 15일 117. 1955년 8월 15일 118. 1955년 9월 15일 119. 1955년 10월 15일 120. 1955년 11월 15일 121. 1955년 12월 15일 122. 1956년 1월 15일 123. 1956년 2월 15일 124. 1956년 3월 15일 125. 1956년 4월 15일 126. 1956년 5월 15일 127. 1956년 6월 15일 128. 1956년 7월 15일 129. 1956년 8월 15일 130. 1956년 9월 15일 131. 1956년 10월 15일 132. 1956년 11월 15일 133. 1956년 12월 15일 134. 1957년 1월 15일 135. 1957년 2월 15일 136. 1957년 3월 15일 137. 1957년 4월 15일 138. 1957년 5월 15일 139. 1957년 6월 15일 140. 1957년 7월 15일 141. 1957년 8월 15일 142. 1957년 9월 15일 143. 1957년 10월 15일 144. 1957년 11월 15일 145. 1957년 12월 15일 146. 1958년 1월 15일 147. 1958년 2월 15일 148. 1958년 3월 15일 149. 1958년 4월 15일 150. 1958년 5월 15일 151. 1958년 6월 15일 152. 1958년 7월 15일 153. 1958년 8월 15일 154. 1958년 9월 15일 155. 1958년 10월 15일 156. 1958년 11월 15일 157. 1958년 12월 15일 158. 1959년 1월 15일 159. 1959년 2월 15일 160. 1959년 3월 15일 161. 1959년 4월 15일 162. 1959년 5월 15일 163. 1959년 6월 15일 164. 1959년 7월 15일 165. 1959년 8월 15일 166. 1959년 9월 15일 167. 1959년 10월 15일 168. 1959년 11월 15일 169. 1959년 12월 15일 170. 1960년 1월 15일 171. 1960년 2월 15일 172. 1960년 3월 15일 173. 1960년 4월 15일 174. 1960년 5월 15일 175. 1960년 6월 15일 176. 1960년 7월 15일 177. 1960년 8월 15일 178. 1960년 9월 15일 179. 1960년 10월 15일 180. 1960년 11월 15일 181. 1960년 12월 15일 182. 1961년 1월 15일 183. 1961년 2월 15일 184. 1961년 3월 15일 185. 1961년 4월 15일 186. 1961년 5월 15일 187. 1961년 6월 15일 188. 1961년 7월 15일 189. 196
--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비온다
뚜껑 덮어라”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비구니를 장독뚜껑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까?
欲速不達이란 말이 있듯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할지라도
順理를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行動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지켜나갈 때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社會가
건설될 것입니다.

바구니 하나를 제자리에 놓듯
三養社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산업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60여년을 한결같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纖維部門 · 폴리에스테르SF, 폴리에스테르FIL, 綢紡糸
- 食品部門 · 雪糖, 配合飼料, 水産物, 畜産, 포도糖, 高果糖, 밀가루
- 化学 · 機械部門 · 이온交換樹脂, TPA, 엔지니어링플라스틱, PET-BOTTLE, 産業機械

정국에 대한 기포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이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개량 민주화시대 「정국의 속사정」

올림픽 이후의 정국 분석

이제 정국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이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국에 대한 기포설은 정국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강경 우익발어... 지배층 불만시사

내부 민주열기 분산위해 북방정책 시도 예상

강경 우익발어... 지배층 불만시사. 내부 민주열기 분산위해 북방정책 시도 예상. 강경 우익발어... 지배층 불만시사. 내부 민주열기 분산위해 북방정책 시도 예상.



김정호의 정치적인 정국운영 구도를 짐작할수있는 흥미로운 발언이 잇달아 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

5공화국 부정비리... 노정권 통치기능 위협

5공화국 부정비리... 노정권 통치기능 위협. 5공화국 부정비리... 노정권 통치기능 위협. 5공화국 부정비리... 노정권 통치기능 위협.

동국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회는 동국대학교 교수회라 한다. (이하 이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회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수자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 (주체) 이회의 사무소는 동국대학교에 둔다.
- 제4조 (회원) 이회의 회원은 동국대학교 재직 전임교수 전원으로 한다. (이하 회원이라고 한다.)
- 제5조 (구성) 이회는 총회, 캠퍼스회, 대외위원회, 단과대학교수회를 구성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권리) 회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 심의 및 표결할 수 있다.
- 제7조 (의무) 회원은 이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와 캠퍼스회

- 제8조 (성격) (1) 이 회의는 동국대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2) 이회에는 각 캠퍼스의 운영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캠퍼스회를 둔다.
- 제9조 (구성) 총회와 캠퍼스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권한) (1) 총회와 캠퍼스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기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이회의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2) 캠퍼스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캠퍼스장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 또는 각캠퍼스별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총회 4분의1 이상, 대외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캠퍼스회는 각 캠퍼스회원 4분의1 이상, 대외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캠퍼스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대외위원회

- 제17조 (성격) 이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기구로서 대외위원회를 둔다.

- 제18조 (구성) 대외위원회는 각단과대학에서 선출된 대외위원과 총회장, 캠퍼스회장, 캠퍼스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제19조 (대외위원) 각 단과대학별 대외위원 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소속 대외교수의 수가 30명 미만의 대학은 2인 (2) 소속 대외교수의 수가 30명 이상의 대학은 3인
- 제20조 (선출) 대외위원은 단과대학의 교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제21조 (임기) 대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 (권한) 대외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기본계획안 및 중요한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2.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복지, 장학금 산발에 관한 사항 4. 교원보조인 교수, 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장의 출석, 단발요구에 관한 사항 6.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주요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3조 (회의) 대외위원회는 총회, 캠퍼스회장, 대외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총장(경우필요시 부총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제24조 (의결) 대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외위원 3분의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단과대학교수회

- 제25조 (성격) 단과대학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 제26조 (구성)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각 단과대학에 둔다.
- 제27조 (권한)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대학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대외위원의 임기 3.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복지, 장학금 산발에 관한 사항 6. 교원보조인 교수, 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8조 (회의) 단과대학교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1)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 재적회원 3분의1,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 제33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외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7장 재심요구

- 제34조 (총장 및 학장의 재심요구) (1) 총장(경우필요시 부총장)은 총회, 캠퍼스회, 대외위원회, 단과대학교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장은 단과대학교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재심의결) 재심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 정

- 제36조 (재정) 이회의 재정은 학교예산으로 충당한다.

제9장 규정개정

- 제37조 (규정개정) 이규정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대외위원 3분의1 이상으로 의결한 후,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부 칙

- 제1조 (규정의 사항) 1. 이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규례에 준한다. 2.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조 (효력의 발생) 이규정의 효력은 1988년 8월21일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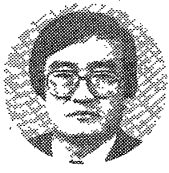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국근

서울 ■ 신화전자: 745-6301 ■ 칼럼리텔: 332-6803 ■ 여의도이글: 877-5331 ■ 소프트 박: 546-7402 ■ 현대데이터: 540-7186 ■ 성문전자: 756-6607 ■ 코스텔: 486-9632 ■ 테크넷: 784-6623 ■ 토미아: 532-4177 ■ 한국OEL: 272-5009 ■ 제성산업: 783-7074 ■ 한국 종합산업: 548-9521 ■ 부산 ■ 현대칼럼리: 032) 64-3700 ■ 안현 ■ 바이오-리컬퓨터: 032) 762-5544
수원 ■ 이화사우지: (0331) 44-7677 ■ 부산 ■ 부경: 051) 645-7660 ■ 현대칼럼리: 051-805-0386 ■ 칼럼리텔: (051) 22-4451 ■ 대구 ■ 대구칼럼리: 053) 422-8362 ■ 마산 ■ 대경칼럼리: (0551) 95-1617 ■ 광주 ■ 현대칼럼리: (062) 224-6010 ■ 여수 ■ 현대칼럼리: (0662) 64-4675 ■ 울산 ■ 한양칼럼리: (0522) 94-1117 ■ 대전 ■ 현대전자 종합센터: (042) 255-9809

한방 암치료처방법 개발

임상결과 70% 이상 병세 호전·회복 보여

한양대대尹泰汝교수가



尹泰汝교수

한양대학교 한방암연구소장인尹泰汝교수는 한방암 치료에 있어 '한방'이 아닌 '한방의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尹 교수는 '한방'이 단순히 약재의 조합이 아니라, 인체의 기혈 순환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구팀은 '한방의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을 개발하여, 임상결과 70% 이상 병세 호전·회복을 보였다고 밝혔다.尹 교수는 "한방의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은 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뱅크」이용저조로 운영난 사용부담 경감·홍보대책 요구돼

한양대학교 데이터뱅크(DDB)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DB는 대학 내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지만, 이용률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DB 측은 "이용률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DDB 측은 "이용률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DDB 측은 "이용률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在美 高遠시인 초청강연 「민중」문학의 방향 주제로

한양대학교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시인 高遠(고원)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의 주제는 「민중」문학의 방향이다. 高遠은 "민중문학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연동아리연합회로 개칭

대표자의 학술·사회등 7개분과로 재편

한양대학교 서연동아리연합회가 개칭되었다. 연합회는 대표자의 학술·사회등 7개분과로 재편되었다. 연합회는 "개칭을 통해 학제 간 교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학문적·사회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여아, 여기가 이 호들의 나열된 최후의 순간이다』 『아저씨, 그런 노정상 철거와 불심검문, 그리고 독재정권, 뭐 장차(?)도 없겠네요!』 『글쎄?』 『영화구역!』 『여러분의 민중의 생존권과 지킴은 계속될 것이다.』

△글=정성기기자, 사진=류종필기자

정주 줄준위 활동 활발

한양대학교 정주 줄준위 활동이 활발하다. 줄준위는 학생들의 학업·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줄준위는 "학생들의 학업·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투 합의 동인

한양대학교 학자투 합의 동인이 발표되었다. 동인은 학제 간 교류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학문적·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서 흘러나온 비밀(?) 아닌 비밀 공개

한양대학교 기획조정실에서 흘러나온 비밀(?)이 아닌 비밀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비밀은 대학 내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용률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 어학실습실 개방

한양대학교 경주 어학실습실이 개방되었다. 실습실은 학생들의 어학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어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POSCO

광양제철소 2기 준공

“頂上人生의 설계”

무슨 일이든 남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다른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단순히 남보다 앞서는데 그치지 않고 어느 한 분야의 頂上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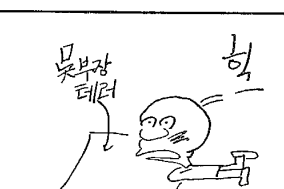
포항제철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단일 제철소로서는 세계 제1위의 생산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광양제철소는 지난 7월 540만톤 체제를 준공하여 세계 최선예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전세계가 경이와 선망으로 주시하는 세계 정상 기업-포항제철은 “頂上人生”에 도전하는 젊은 大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터전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世의 행복과 다음 世紀의 번영을 약속하는 國民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어로니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 원고지 8매내의
▲연극, 영화, 문학비평: 원고지10매
〈문화부〉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겪은 이야기라 꽤 감동적이었다. 어쩌면 그 감동은 88년 여름의 통일열기에 덧붙여 그 폭이 넓어졌는지도 모른다.
올해 56세의 이영식 (본명 육철식) 이 쓴 빨치산을 보고 기존의 생각이 흔들릴 만큼 동경



과 안타까움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가 환상적인 공산주의에 반해 버린 복사와 최인이어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 때문이었다.
친구의 딸 딸마더에 원복을 결정한 17세의 소년은 사상에 물들었으면 얼마나 물들었겠는가 하는 실로 가슴아픈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되면 학비는 스스로 벌여 보겠다면 입학패의 결실을 실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 들었다.
누구나 처음 접하게 되는 일에는 두려움과 함께 미지의 경계에 대한 가벼운 설렘을 느끼게 마련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자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 절반의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모 백화점의 운영팀 사무실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단으로 결과한 침에화된 민족수단사”

「빨치산」을 읽고

그는 소련으로 유학 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는 커녕 그 어린 나이로 인간의 삶을 배우고 만다. 그 열혈한 훈련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먹과 담배였다. 그러다가 점차 정치성을 섞은 인민군장교로 길들여진다. 그러나 그 길들여지는 동안에도 사춘기가 겪는 순수한 사랑에 눈뜨는 대목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군 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부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교육받은 군관학교에서 과연 사랑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일면서 한편으로는 둘의 사랑이 결실 맺기까지 가슴 조이며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어지거나, 그 어린 나이에 헤게모니 정반의 희생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웬지 모르게 울적 분노가 섞인 슬픔이 치솟았다.
뿐만이 아니라, 감동은 백마산, 백운산에서 마치 산짐승마냥 쫓기는 그들의 도주에서 극에 달했다. 분명히 이념을 달리는 것이지만, 그들도 살아야한다는, 그 리하여 이념이나 전경이야 어떻든 꼭 살아 자신들의 삶을 찾아야한다는 도덕적인 혐오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고장난 무전기를 붙들고 우는 상황에서는 그 어리석은 고정 관념에 허탈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 사상을 달리는 우리 쪽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군포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던 기억도 까마득, 빨치산이 된



이영식은 때로는 협박으로, 급하면 도적질로 목숨을 이어가는데 생필과 음식을 씹는 빨치산들의

거의 기본바탕이 현재의 일의 능력과 연결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되기를 갈망해 왔고 또, 어느 정도는 뭔가 된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던 나였었다.
그러나,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합당하는 마음가짐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단지 어떤 위치나 졸업장을 지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특히, 두세가지의 외국어 실력과 다변면에 걸친 독서를 통한 양식을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였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생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와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대학시절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 생애의 나머지를 좌우하는 초반기의 기로가 아닐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미완성」이라 말하고 싶다. 결과에만 급급하지 않고 결과까지의 과정, 즉 발과 노고의 열매나 쏟아졌나를 통이켜 볼 줄 알아야 한다. 남보다 완성으로의 발돋움에 전력투구하는 것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줄수 있을 것이다.

처음 며칠간은 당황하고 조금 한 가운데 정신없이 일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다 가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 막상 겪어 본 현실은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압박감

미지의 경험에 대한 설렘으로 시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방정하면서 경직상태인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으로 가득한 경직상태 바로 그것이었다. 거기에서 학생으로서의 생활과 준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의 다름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기업은 열리를 추구하는 법인체이며, 시간과 돈이 결부되어 돌아가는 것이 곧 사회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다.
한편,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게 되자 나는 내가 자신에게 부여해온 가치와 실제 나 사이에 놓여진 심한 괴리를 느꼈다.

사소하게 생각해서 무시해 버리기 일췌인 일상사가 실은 우리 존재를 시험, 인증, 그리고 평가한다는 사실이 냉정한 현실이었으며, 그러한 현실에서 나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실을 더욱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다」는 것이 선행조건이었다. 파

미완성인 대학생들을 완성으로의 발돋움에 한발 다가가게한 소중한 시간들로 남을 것이다.

당황하고 서둘러서 실수연발이었던 을 여름 15일간의 아르바이트가 내겐 금을 주고도 못할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자부한다.

김 은 숙

〈문화대 국문과〉

살바도르

한 미국사건작가의 눈을 통해 내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엘살바도르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을 고발한 영화 「살바도르」가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한국에 상륙, 젊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과도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데서 더



이같은 줄거리의 영화 「살바도르」는 독재정권이 부패와 학정에대한 반발로 분열되어 난 반정부 게릴라와 살바도르 정부군간의 첨예한 대립, 내란의 와중에서 희생당하는 양민들, 그리고 독재정권에 찬동하지 않는 반체제세력을 향한 정부측의 무차별 탄압을 충격적인 화면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엘살바도르 내전의 원인이 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사회현실들의 배경은 드러나지 않고있다.
제국주의 국가가 압력, 협박, 군사력, 상충방위조약을 통해 중남미의 민중을 정치적으로 굴

복시키고 자신의 군대로서 직접적으로, 혹은 때때로 자본가계급이나 손수 훈련시켜 독재정권은 내란군대를 조종하여 간접적으로 중남미 각국에 개입한 다면 중남미의 민중들은 그같은 영향력이나 개입에 좌우될 수밖에없는것이 중남미의 참담한 현실정이다.

영화 「살바도르」에서는 엘살바도르 사태에 대한 공국적이고 원천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미국이 독재정권을 무제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실책인양 쉽게 간과해버리게끔 유도되어진다. 미국인이 미국의 범죄를 고발하는 영화인 경우, 비록 양심적인 견지에 섰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시각의 모순에 의해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없는 것이다.
「살바도르」가 깊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태의 진실에서 멀어진 탓과 의 추정만을 가지고 영화의 흐름을 교묘적으로 이끈데 있으며 7주간의라는 엄격한 촬영 일정 탓인지 형식미가 제대로 수반되지 못하고 전체적인 리듬이 정리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 배 근
〈예술대 연영과〉

대統領閣下

심초사 하면 끝에 경종을 울려주시기까지 하신 자에로우신에 물들바를 모셨나이다. 이런 각하를 일부 극소수의 불지각한 자들은 12·12쿠데타와 5·17광주항쟁당시 약간의 「폭도」들을 처벌하는데 관여했다는 사실정도를 갖고 감히 불려나라니, 처벌해야 한다니 떠들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 아닐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는 속담이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가 점점 줄어드는 「프랑스」라든 속시 몰라도. 육사출신 대장이란 미미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약간의 도움으로 「보통사람」이 대권을 손아귀에 뒀 수 있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례를 찾아 볼수없는 과업을 이루어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시는 것에 비하면 「광주문제」 정도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더구나 이승만前대통령의 반공정신과 박정희前대통령의 대북한 군사위정척과 전두환前대통령의 강력한 「싸움」이 정체를 두루 알고 계신 각하께서는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올림피후의 재신임 약속을 군부대과 같은 곳에서 여권조사를 하는 식이더라도 꼭 실천에 옮기겠다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언제 바깥이 있다면 「신선정」이 뜰에 각하의 비위를 다소 순드린다 해도 제2의 뽕밭장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하는 것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

전국 大學生 대상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 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本誌제정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東大文學賞」이 이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등용문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시... 5篇이상
- ▲小説... 2백자원고지 60枚내외
- ▲評論... 2백자원고지 60枚내외

◇응모요령

- ▲응모 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재학생
- ▲제출 기간: 1988년 9월 5일~15일
- ▲시 상: 상장 및 상금 <詩=본상 15만원, 가작 10만원, 小説·評論=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 ▲심사 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당선자발표와 함께 공개
- ▲당선자발표: 1988년 9월 27일 本誌 紙上
- ▲작품제출처: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우편번호 100-715)
- ※작품제출봉에 「東大文學賞」 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魚 大 新 聞 社

왜 우리가 “샤니”를 선택했나 하면..

파트너를 고르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현재의 능력, 앞으로의 가능성...등을 살펴보고 같이 일하기에 불편이 없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 각처에 좋은 파트너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도 역시 아주 훌륭한 파트너를 두고 있지요. 주식회사 샤니(Shany) — 지난 16년 동안 쌓아온 제빵, 제과사업의 KNOW-HOW가 있고 실질적인 규모나 실적, 사원들의 잠재력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니가 만들어 내는 모든 제품을 신뢰하고 좋아하지요. 제 자신도 샤니가 우리 동반자로 있는 것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기업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기분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1988. 8.

Baskin Robbins International Corp.
Sr. Vice president Barney B. Brown

(Signature)



미래시장의 건물을 생각하는 주식회사 샤니

최근 5년간 남보다 빠르게 성장한 종합식품체인 (주)샤니는 동업자에게선 최초로 정부공인 종합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새로운 인재를 중시하고 기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 파리 크라운: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최고급 베이커리
- 파리 바게트: 프랑스 전통의 빵을 직접 구워내어 가장 신선한 빵을 공급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최고급 빵집
- 프랑스 소레다(Soreda)와 기술 제휴하여 생산하는 유제품의 파일
- 미국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사와 합작투자 5800종의 순수 천연 아이스크림 생산
- 후라이 브라운(FRESH BROWN): 국내 최초로 최신 완전자동 시스템인 미국 랜햄(LANHAM) 설비를 도입해 생산하는 고급식빵
- 파티: 영국 제일의 종합식품회사인 LYONS와 기술제휴로 생산되는 영국식 전통케이크

※공장 소재지: 성남 공작, 부산 공작, 광주 공작, 대구 공작.